혁신과 변화

싹 바꿔라!

옛날 어느 재벌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말고는 모두 싹 바꿔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 말이 당시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 말답게 그 회사는 혁신을 통해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런 기업도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또 혁신해야 한다. 오늘의 일등이 내일의 일등이 아니라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잘나가던 기업이 사라진 예는 너무 많다. 모두 혁신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사람도 혁신하려면 싹 바꿔야 한다. 그 바꿀 대상이 좋지 못한 습관과 태도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선생이 『격몽요결』에서 말한 '혁구습革舊習'은 그런 의미이고, 상소문 등에서 나라의 제도나 법 따위를 혁신하는 일을 '경장更張'이라 불렀다. 사회의 변화가 적은 그 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했는데, 하물며 요즘 세상이겠는가?

선생이 「혁구습장」에서 주장한 싹 바꿔야 할 습관에는 총 8가지인데 소개하면 이렇다.

우선 생각이 게으르고 몸이 편안하기만을 바라 어디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일이다. 요즘도 이런 아이들 있다. 제 할 일을 안 하고 게으르며 규칙을 안 지키는 버릇이다.

둘째,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란하게 드나들며 떠드는 습관이다. 학교에서도 이런 학생 교사들이 싫어한다.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이다.

셋째, 같은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싫어하여 유행을 따르되 남과 사이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태도이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도 또래 아이들과 다른 차림이나 물건을 소지하면 따돌림을 당할까 봐 똑같이 행동한다.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창의성과 거리가 멀고, 자기의 주관을 뚜렷하게 세우는 데 방해가 된다. 그 옛날에 선생이 이런 일까지 지적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넷째, 문장으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기 좋아하여, 경전을 표절해서 화려한 문장을 꾸미는 일이라고 한다. 필자가 볼 때 이는 저술에 작품을 표절하지 않은 이상 되레 권장할 만한 일이다. 각 시대의 문화에서 숭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 고전의 내용을 가지고 화려한 문장을 꾸미는 학생이 있는가?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는 게 가상하지 않은가?

다섯째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악기 연주와 술 마시는 일을 업으로 삼아 한가하게 노는 것인데, 요즘 취미로 악기 배우는 일이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술을 좋아하는 일은

문제가 된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며 돈을 낭비하기 쉽기 때문이다. 자녀 가운데 술을 너무 자주 마시면 자제하도록 습관을 확 바꾸어야 한다.

여섯째,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놀기만 하고 남과 다투는 일을 일삼는 경우이다. 요즘은 취미 삼아 바둑이나 장기를 둘 수 있고, 프로게이머나 바둑 선수가 될 수도 있다. 남과 다툰다는 것은 내기 바둑이나 인터넷 도박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한다. 자제할 일이다.

일곱째,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싫어하여, 화려하지 않은 옷과 많이 차리지 않은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다. 이 일은 요즘은 잘 사는 집의 자녀에게 해당할 것 같다. 혹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떤 처지에 있든 자기를 분수를 지키고 규모 있게 사는 교육이 필요하다.

여덟째, 즐기고 좋아하는 욕심이 끝이 없어 억제하지 못해 재물과 음악과 여색에 빠져 그 맛을 사탕처럼 여기는 일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다 자란 자녀가 재물욕이 넘치고 유흥가에서 흥청망청 놀기를 좋아하는 일이다. 재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모으는 일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유흥가에서 놀기 좋아하는 일은 나쁜 습관임은 분명하다.

선생은 이런 이전의 나쁜 습관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늘날에도 유효한 점이 꽤 많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고치는 시기가 빠를수록 좋다. 부모

는 자녀에게 어떤 나쁜 버릇과 습관이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서 고쳐주어야 한다.

또 선생은 나라의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본서는 가정교육을 다루므로 그 개혁의 대상이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의 대상은 매우 많다. 인성교육에서 시작하여 교과교육까지 다양한데, 그래도 뭐니해도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학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인성교육이리라. 그래서 선생의 '혁구습'을 소개했다.

그리고 가정교육에서 확 바꾸어야 할 내용은 무엇보다 교육 목표와 관련이 있다.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공부 좀 한다고 하면, 부모들은 검사나 판사 아니면 고급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시험 쳐서 합격하면 되니까. 그게 과거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가 출세할 수 있는 쉬운 길이었다. 조금 세월이 지나니 이제는 돈 잘 벌고 명예도 따르는 의사나 변호사 또는 교수 등이 되기를 교육의 목표로 삼기도 했다. 오늘날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처럼 인기를 끌고 돈도 생기는 직종을 선호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모두 돈과 명성과 관련이 있다. 이른바 출세나 입신양명이 교육 목표였다. 이게 오늘날 한국사회의 빗나간 특권의식 또는 불공정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을 만든 주범이다.

가정교육에서부터 교육 목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선생이 제시한 뜻을 세우라는 꿈의 대상을 확 바꾸어야 한다. 미래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도 확 바뀔 것이다. 그래서 출세와 돈이 목표가 아니라 자녀의 재능과 소질이 완전히 발휘되는 행복한 일이어야 한다. 출세와 돈 따위

는 수단이다. 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 활짝 꽃피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른 말로 자아실현이라고도 불렀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욕구를 분석한 서양의 어느 학자가 가장 고차적 욕구라고 했지만, 경제가 풍족해지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금과 미래 세상에서는 이 욕구의 실현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안전하고 먹고살 만한 데 정말로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미친 듯이 하는 것,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푹 빠진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말리겠는가?

자 이렇다면 부모의 교육 방식도 확 바꾸어야 한다. 그 알량한 입시 교육, 그래 입시에 성공해 간판을 따기 위해 대학을 나와 봤자 기대한 만큼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위해서? 공부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계속 대학에 머물러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차라리 밥벌이를 위한 교육을 기본으로 시키고, 그다음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좋아하는 일이 밥벌이가 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다가 혹 한계를 느껴 더 알고 싶으면 그때 대학에 가도 늦지 않다.

해보기는 했어?

요즘 젊은 부모들은 옛날 부모들보다 교육 관련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아무래도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일 게다.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말이 그럴듯하고 설득력도 있어 보이는데, 선뜻 그런 방식의 교육에 용기가 나지 않는다. 대개 초등학교 3~4학년까지 학부모들은 독서를 통해 얻은 새로운 교육 방식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정작 5학년 이상만 되면 태도가 돌변한다. 소질 계발이나 예·체능이니 다 그만두고, 주지 교과 위주의 과목을 다루는 학원에 보낸다.

그 까닭은 아무래도 새로운 도전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게 그나마 덜 위험할 것 같아서이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한다. 하기야 인간은 실험실의 생쥐가 아니니,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지도 않은 길에 선뜻 나선다는 게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좀 냉철히 생각해 보자. 이건 인생을 다 살아본 늙은이들한테 물어볼 일이기도 하다. 살아 보니까 어땠습니까? 뭐가 제일 후회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도전해보지 않은 일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대답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비교적 풍족하게 잘 살았다는 사람조차도 그럴 것 같다.

왜 그런가? 살아보니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해본 일 더 그립고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남들 하는 대로 평범하게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고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은퇴하고 그럭저럭 노후를 보이는 일이 보통 사람들의 일생이다. 그 과정에 약간의 신나고 즐거운 일이 없지는 않았겠으나 삶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노후의 생각도 태도도 삶도 모두 비슷비슷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일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른바 부모의 체면이 서고 남의 이목을 끄는 직업을 가져야 잘 키웠다고 자부하고 자랑한다. 왜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바라지 않을까? 수입이 적으면 어떻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지면 어떻고, 학력이 낮으면 또 어떤가?

문제는 자녀가 정신적으로 꿀리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사는 게 중요하다. 자녀가 삶 자체를 즐기면서 내면적으로 크게 성숙하여 고명高明한 인생철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삶에 열정적이고 늙을수록 지혜가 많아지며 여유롭다. 명예나 지위나 재산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것도 그의 뜻을 꺾지 못한다. 이웃과 공동체와 자연과 하나 되어 살지만, 아무도 알아보거나 알아주지도 않는다. 아니 그의 경지를 모르기에 알아줄 수도 없다. 하지만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사는 데는 직업이 무엇이든 수입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자녀가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을 통해서든 성실하게 살면 그렇게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이다. 그는 스승 없이 독학하여 성인이 된 사람이다. 선생의 성인 되라는 입지立志도 이런 식의 삶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러니 부모 본인도 그렇지만, 기존의 방식을 확 바꾸어 새롭게 시작해보기는 했는가? 현대그룹의 창설자 고 정주영 회장의 말 가운데 "해보기는 했어?"라는 말이 있다. 시작도 안 해보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일은 실효성이 없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매우 단순하고 하찮아 보여도, 시작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될 것이다. 창의성과

문제해결이 뛰어난 자녀로 키우려면 기존의 방식을 확 바꾸어야 한다. 그게 입시 교육이든 나쁜 습관이 되었든 헛된 꿈이든 하기 싫은 공부든 간에 자녀가 좋아서 미칠 수 있는 일로 확 바꿔주면 어떨지.

그래서 부모든 학생이든 실천이 답이다. 선생은 그것을 힘써 실천한다는 역행力行으로 이름 붙였다. 물론 선생이 말하는 역행의 주 대상은 윤리적 실천이다. 현대 사회에 맞는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는 일도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는 일도 그것이다.

요즘 제도권 교육과 다른 길을 가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대안학교, 독학, 홈스쿨링, 그룹학습 등 여러 형태가 있다. 나름의 새로운 도전으로 보인다. 필자는 서양 중세의 도제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굳이 기술만 익히는 일은 아니지만, 예체능, 상업, 철학과 문학 등의 인문학, 만화, 건축,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농사짓기, 동물사육 등 뭐든 도시락 싸서 전문가의 제자로 들어가 그를 도우며 배우는 일도 괜찮다고 본다. 기본이 쌓이면 창의성도 더 빛나는 법이니까. 다양한 인재가 나와야 본인도 좋고 나라도 발전한다.

변화에 앞장서라

미래사회의 변화는 지금보다 빠를 것이다. 기술혁신이 그것을 가속화 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회 시스템은 물론이고, 가치와 생활방식

도 바뀌게 된다. 자신이 예전에 살았을 때의 가치와 문화를 고수하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다. 끔찍하지만 또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초기에 세계적 유행이 감지되자 많은 나라에서 감염의 확산을 우려하여 국경을 차단하고 출입을 봉쇄하는 길을 걸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라마다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 또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자,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하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사재기에 열을 올렸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가 늘어나 사실상 의료 붕괴 현상까지 일어났다. 다수의 선진국은 사실상 방역을 포기했다. 이게 21세기 선진국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다른 길을 걸었다. 출입을 봉쇄하지도 않았고, 국민은 정부의 방역에 잘 협조하여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경제성장도 선진국보다 앞섰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다르게 경제도 살리고 방역도 성공한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지만, 필자가 볼 때 무엇보다 우리 민족 특유의 위기에 더 강한 민족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역사적으로 거의 일천 번의 외침을 당해 왔기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녹아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었다고 본다. 우리의 국난 극복 사례를 보라! 지난 촛불혁명도 국정농단이라는 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 낸 일이다. 위기란 항상 변화를 전제한다. 그래서 그 변화에 적응하고 그것을 주도

적으로 이끌었다.

서양 선진국은 그러지 못했다. 그 원인은 그들의 문화 속에 있다. 관습·가치·사상·태도 등이 개인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의 철학적 연원은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과 기독교의 영혼론에 닿아 있다. 게다가 백인 특유의 우월감이 유럽 문화를 중심에 두고, 다른 지역의 그것을 비하하는 모습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다.

팬데믹은 고립된 개인주의의 문화가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경제도 국경도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그면 그만큼 생태계가 무너져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더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우월적인 행동이야말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유럽인들은 한국을 배워야 했다. 유럽의 지식인들 가운데는 그 특유의 유럽 중심의 사고에 갇혀, 한국 국민의 자발적 협조와 방역 성공을 과거 독재 시대의 산물이라고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중심이 되어 서로 연결된 사회라는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톡톡히 경험했다. '닭 머리가 될지언정 소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듯이, 어차피 변화에 적응할 일이라면, 남을 따라가지 말고 변화에 앞장서는 일이 훨씬 현명하다. 먼저 하는 사람이 앞서간다.

교육도 이렇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도 교육이 미처 그 변화를 따

라가지 못한다면, 가정교육만이라도 앞서가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 가운데 하나는 미래사회에 맞는 인성을 배양해야 한다. 서양인들의 개인주의와 같은 인성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공생하는, 또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위기 때는 그것을 자제하면서 협조하는 미덕을 발휘하는 인성을 길어주어야 한다.

선생의 『격몽요결』에 "항상 온순하고 공손하고 자애로우며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을 구제할 것을 생각하고, 남을 침범하고 해치는 일은 털끝만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야 한다. 무릇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남을 침해하게 된다. 그래서 배우는 자는 먼저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끊어 버린 뒤에야 인仁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미래사회에 딱 어울리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의 경제나 삶은 고립된 개인주의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쪽이 무너지고 한쪽이 잘되면 다른 쪽도 잘되게 연결되어 있다.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어땠는지 상상해 보라! 자기만 살려고 개인주의로 나가면 곤란하다. 상생과 공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모두가 잘살 수 있다.

미래는 이 모든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앞서갈 것이다. 앞장서 가는 자가 답을 가지고 있다. 20세기는 우리가 그렇게 남을 따라왔다.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